

2023 문화 화제

<3> 첫 그림책 펴낸 허달재 화백

어른아이 '나는 누굴까?'

글·그림... 엔씨 소프트와 제작 바다·하늘 등 보며 자신 찾아가 한지에 번진 은은함·수묵 인상적



아니면 너른 바다 같을까?



작은 연못 같을까?



허달재 화백

겨울 찬바람이 여전하지만 그의 작업실에는 매화가 가득했다. 색색의 한지 위에 얹힌 매화는 소박하지만 아름답다. 작가는 작업실 바닥에 앉아 매화 한송이 한송이를 그리며 물입중이었다.

직힌 허달재 화백은 지난해 생애 첫 그림책을 출간했다. 제안받은 지 3년여만에 펴낸 책이다. 그림책이라는 장르도 낯설고 어떤 이야기를 풀어낼까 고민의 시간이 길었다.

동글동글한 아이 두명이 표지를 장식한 그림책 제목은 '나는 누굴까?'다. 책 피치엔 '아이들은 상상하고, 어른들은 생각하는 그림책'이라고 쓰여있다. 그림책을 읽은 가수 김장원은 "나는 울었다. 너무 아름다워서... 왜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오래도록 짚어보고 왔을까"라고 했다. 인터넷 서점 평에는 "어른아이인 우리 모두가 조금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라는 글귀도 있었다.

이번 그림책은 어른이 읽어도 좋은 책이다. 마음을 움직이는 소박한 그림과 글귀에 지루 책을 뒤적이지 않게 된다.

그림책을 펴낸 곳은 엔씨 소프트다. '웃는 땅콩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엔씨 소프트의 그림책 목록 중에는 전래 그림책 작가들이 아닌, 화가들의 그림책이 눈에 띈다. 노석미 작가의 '나는 고양이', 사석원 작가의 '우리집 막내 토끼' 등이다.

"기존 그림책을 보니 주로 동적인 느낌이 강하

더군요. 그래서 저는 정적인 느낌의 책을 만들어보려 했어요. 제가 그림책은 잘 모르는데 책에는 주로 뛰어노는 아이들이 많더군요. 저 혼자 곱뚱히 무언가를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을까 싶었죠.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유치원에 가는 것도 새로운 생활이라는 점에서는 얼마나 이런 저런 생각이 많겠어요. 격정도 되고요. 우리 어른들이 그리는 것처럼 아이들도 자신만의 세계를 갖고 있죠."

허 화백은 남종화의 일가를 이룬 의재(義齋) 허백련 화백의 장손으로 '좋은 그림은 좋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6살 때부터 붓을 잡고 서예와 그림, 학문을 익혔다.

"할아버지는 늘 차를 마시며 정신을 맑게 하고, 그 맑은 정신으로 잘 생각하고, 판단을 해 몸이 움직여야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림책 작업을 하며 생긴 것도, 성품도 다 다른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싶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몸에 대해서만 집착하는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자 싶었습니다." 그림책에 등장하는 아이는 눈코입이 없다. 팔 다리도 감추고 있다. 허 화백은 그림을 보는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이일 수도 있고, 어른일 수도 있고.

책 속 아이들은 산과 바다와 하늘 등 자연을 보며 자신을 찾아가간다. 아침에 떠오른 해님일지, 밤을 밝히는 달님일지, 낮은 산일지 높은 산일지 생각한다. 또 너른 바다일지 얇은 연못일지, 작은 조약돌일지, 큰 바위 일지 궁금해한다.

복잡한 사회 속에서 친구들과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 타고난 성품대로 살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다 보면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가 그림책의 마지막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다.

그림책은 허 화백의 화풍이 그대로 담겼다. 한지에 번지는 은은함과 색채, 검은 수묵의 느낌이 인상적이다. 그의 매화 그림에 등장하는 하얀 점들은 이리저리 모여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우리 식의 그림책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안데르센등의 동화도 좋지만요. 고모, 삼촌, 할아버지에게서 우리가 다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허 화백은 올 한해 동안 아부다비 아트페어와 마이애미 아트페어 등에 참여할 예정이며 무등산 의재미술관에서 열리는 매화전에도 출품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지난해 열린 국악상설공연 무대 장면.

<광주시 제공>

'까치야, 놀자' 국악상설공연 18일 막 연다

판소리·민요·한국무용 등 매주 수~일 광주공연마루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국악상설공연이 18일을 시작으로 올해 공연의 막을 연다.

국악상설공연은 광주시립창극단,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지역국악단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로 판소리, 민요, 한국무용 등의 공연을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공연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열린다.

올해의 첫 공연이 열리는 18일에는 프로젝트 앙상블 연의 '까치야, 놀자!'가 펼쳐진다. 이들은 '호남 설장구 놀이' 등 7곡을 선보인다. 다음 날에는 타악그룹 일수의 '일수-신년한마당'을 통해 '신장구 바이러스' 등을 만나볼 수 있다.

20일에는 향산주소연 판소리보존회의 '國泰民安(국태민안)'을 무대에 올린다. 이날 공연에는 전통연희그룹 자타공인이 함께한다.

21일 펼쳐지는 (사)창작국악단 도드리의 '아리랑 광주'에서는 국악 가요를 만나볼 수 있다. '썩대머리', '아름다운 나라' 등 우리 귀에 익숙하고 잘 알려진 노래를 통해 관객들과 거리를 좁힌다.

설날인 22일에는 예락 팀이 '설날에 즐기는 우리 음악'을 관객들에게 펼쳐보인다. '광야의 숨결'과 설장구 협주곡 '소나기' 등 8곡이다.

25일에는 빛고을 무등가야금연주단의 '계묘년 짝 이야기'를 선보인다. 이들은 거장 피아졸라의 곡을 가야금과 바순으로 재해석한 '망각'을 무대에 올린다. 또 북한 작곡가 김영실이 흥남 제련소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출강'도 연주한다.

26일에는 (사)아시아민족음악교류협회의 '전통과 퓨전의 만남 국악 새로이 날다' 무대가 열린다. 이들은 기악합주 '시나위', '진도북춤' 등의 신명나는 공연 뿐 아니라 가야금병창 이야기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들과 호흡한다.

27일에는 풍물세상 굿패마루의 'GOOD 시장'이 펼쳐지며 이어 28일에는 국악그룹 각인각색의 '모던X퓨류 제14마당 새해 아리랑'으로 소프라노 김아람의 무대와 진무용단의 춤사위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1월 공연의 대미는 29일 루트머지(주)의 '신년 맞이 새희망 콘서트'로 장식한다.

공연은 만 4세 이상 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다. 티켓은 공연 10일 전 오전 10시에 열리며 공연 하루 전 오후 5시에 마감한다. 문의 062-613-8372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관현악 앙상블 '디사이플' 창단 연주회

30일 금호아트홀

디사이플 앙상블(사진)이 30일 오후 7시 30분 금호아트홀에서 창단 연주회를 연다.

디사이플 앙상블은 디사이플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들로 구성된 관현악 앙상블로 지난해 창단했다. 이날 공연에는 디사이플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인 플루티스트 손승희가 협연한다.

무대에는 총 5개 곡을 올린다. 먼저 미국 작곡가 제이슨 설리반의 '민요-필란드 D. 카스티야를 기억하며'를 연주한 뒤 모차르트의 '플루트 사중주 4곡 중 제1번'을 선보인다. 곡을 통해 현악기와 적절하게 어우러진 플루트의 매력을 만나볼 수 있다.

또 스페인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사라사테의 "구노의 파우스트"에 의한 연주회용 판타지'를 무대에 올린다. 파가니니 이후 최고의 연주자라는 평을 듣는 사라사테가 자신의 뛰어난 기교를 과시하기 위해 작곡했다는 말이 있을만큼 화려한 기교를 자랑하는 곡이다. 이어 파키토 디리베의 단손을 펼쳐보인다. 디리베는 연주자이자 작곡가로 클래식 및 라틴 재즈 부문에서 그래미 상을 수상했다.

무대의 막은 안토니 드보르작의 '바기텔 작품번호 47번'으로 내린다. 1878년 작곡된 곡으로 무대의 바이올린과 첼로, 하모늄을 위한 다섯 개의 모음곡이다. 전석 1만 원 문의 010-4525-2114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지역 작가들이 담은 전남 풍경

전남도립미술관, 3월26일까지 신(新)소장품전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은 2023년을 여는 첫 전시로 신(新)소장품전을 오는 3월26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신소장품전은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도립미술관이 수집한 작품들을 도민들에게 선보이는 전시다. 신소장품전에서는 동시대성과 현대성을 지닌 작품과 전남지역 출신의 작가, 전남의 풍경을 담은 작품들이 관람객을 만난다.

이번 전시에는 권세진, 김동석, 나현, 박종영, 이정록 등 작가 24명의 다양한 작품이 출품됐다. 특히, 현대미술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설치, 조각, 뉴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들을 공개한다.

더불어, 전남 최초의 도립미술관으로서 수집에 주력하고 있는 전남 출신 작가들의 작품과 순천만, 고흥 등 전남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이 담긴 작품들도 다수 선보이고 있다.

신(新)소장품전의 대표 작가로는 조각과 구동장치를 결합한 키네틱 작품들을 선보이는 여수 출신의 박종영 작가가 있다. 또한, 지나간 역사를 상기시키는 작품을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 선보이는 나주 출신의 최요안 작가와 다큐멘터리에 이미지를 결합해 아카이브 작업을 진행하는 나현 작가도 눈길을 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나현 작 '포모사 프로젝트'

독서모임 '서로배움터' 정지아 초청 강연회

2월 10일 카페 빈센트

구례 출신 정지아(사진) 작가는 지난 1990년 발표한 장편 소설 '빨치산의 딸'로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리얼리스트'로서의 확실한 입지를 다졌지만 그러나 그는 현실을 필진하게 그려내는 데만 머무르지 않았다. 이후 발표한 소설집 '행복', '별빛', '술의 대화' 등은 단아한 문체와 심미적인 아름다움 뿐 아니라 두루 문학성을 갖춘 작품으로 독자들과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펴낸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무려 32년 만에 발표된 장편소설로 주목을 받았다. 역사의 상흔과 가족의 사랑을 엮은 작품은 삶의 현존을 정확하게 묘사한 글로 울림을 선사했다. 당시 그는 작가의 말에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애기도 하는 이 쉬운 말을 환갑 목전에 두고 아버



지 가고 난 이제야 합니다. 어찌했어? 그게 아버지 딸인걸. 이 못난 딸이 이 책을 아버지에 바칩니다"라고 말했다.

정지아 초청 강연회가 오는 2월 10일(오후 7시) 카페 빈센트(광주시 북구 두광길85)에서 열린다. 이번 강연회는 전남대 민주동우회 독서토론회 '서로배움터'가 주최하며 전남대민주기념사업회와 (사)광주전남6월항쟁이 후원한다.

접수는 2월 1일부터 5일까지 선착순이며 참가비는 1만원. 문의 062-514-0045, 010-3947-061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지역 학술출판 사업 진행

국립광주박물관은 2023년도 광주·전남지역 공·사립 및 대학박물관(미술관) 학술출판 협력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협력사업은 광주·전남지역 소재 등록 공·사립 및 대학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서를 제출한 기관 중 5개관을 선정해 공동으로 도록·연구서 발간을 진행한다.

광주박물관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 소재 박물관(미술관)의 연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소장품 정보를 공개해 대국민 서비스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신청은 오는 2월 24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박물관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철학·글쓰기·하루키·영화...인문학 강좌

광주시민인문학, 2월1일~28일 전남대 후문 카페 노블

광주시민인문학이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4주에 걸쳐 99기 정기 인문학 강좌를 진행한다. 전남대 후문 카페 노블(광주 북구 자미로 66번길 7, 2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철학, 글쓰기, 하루키, 영화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진다.

먼저 월요일과 화요일(오후 7시)에는 각각 서명원 교수가 '신체화된 마음, 서구 사상에 대한 도전'을, 명혜영 교수가 '김호연 소설 '불편한 편의점''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수요일(오후 3시)에는 '철학 스테디'를 주제로 위상복 전남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맑스 '자본론' 강독-정치경제비판'을 강연한다.



목·금·토요일(오후 7시)에는 각각 '하루키월드', '독립영화제', '인문학연구소' 시간이 진행된다. 신우진 이사장은 '무라카미 하루키와 음악'을, 진정환 이사와 명혜영 교수는 '영화로 인문학하다!'를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진정환 이사는 '겨울산 트레킹 in 한재골'을 진행한다. 문의 010-4624-120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